

[바 독]

韓 3연패나, 中·日 첫 우승이나

한·중·일 '바둑 삼국지' 도요타 덴소배 오늘 일본서 개막 이창호·이세돌·창하오·구리·요다 등 최정상급 불꽃대결

한국바둑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첫 번째 타깃은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3회 도요타 덴소배 세계 왕좌전. 세 계대회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차지한 후지쓰배(박정상) 외에는 뚜렷한 전과가 없는 한국으로선 구겨진 체면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대회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회는 1, 2회 타이틀을 각각 이창호와 이세돌이 거머쥐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은 계대회여서 바둑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이창호, 이세돌, 최철한, 박정상 등 톱랭커들과 박영훈, 고근태, 조한승 등 정예멤버 7명이 출전한다.

중국도 이 대회 2회 연속 준우승에 그쳤던 창하오, 랭킹 1위 구리 등 7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여 한·중 대결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주

최국 일본은 장수 요다 등 10명이 출전해 첫 우승을 노린다.

이 대회는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며, 내달 1일까지 이를 간격으로 대국을 계속해 내년 초 열린 결승 진출자를 가린다.

한국이 가장 욕심을 내는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은 다음달 6일 삼성화재 유성연 수원에서 막을 올린다. 우승 상금 규모는 2억이다.

11월8일~9일 8강전, 12월4일 4강전을 거쳐 내년 초 패권의 주인공을 가리는 숨겨진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은 최근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통합예선 최종전에서 두 명의 초단을 포함, 모두 8명의 기사가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32강 중에서 무려 16명이 출전한다.

중국과 러시아와 왕사가 탈락했으나 중국기

사 위민 9단 등 7명이 예선을 통과하는 등 모두 11명이 출전, 치열한 한·중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본선에서는 김형우·배준희 초단을 비롯한 신예기사의 활약이 주목된다. 김형우 초단은 지난 11월 제18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전 결승에서 이창호 9단을 꺾고 우승한 중국의 왕시 5단에게 완승했으며, 배준희 초단은 역시 중국의 강타자 공지에 7단에게 승리했다.

1987년 태생인 배준희 초단은 지난해 11월 프로가 됐으며 이날 승리로 국내기전 본선무대를 한 번도 밟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희귀 케이스가 됐다.

역시 신예기사들인 윤준상 4단과 백홍석 5단도 각각 중국의 왕위후이 9단과 일본 쓰루야마 아츠시 6단을 꺾고 본선에 진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은 한국 국적의 김수준 7단만이 외롭게 본선에 올랐으며 대만은 유일하게 최종 결승에 오른 리진환 7단이 중국 저우 허양 9단에게 패해 전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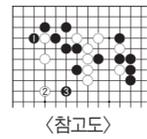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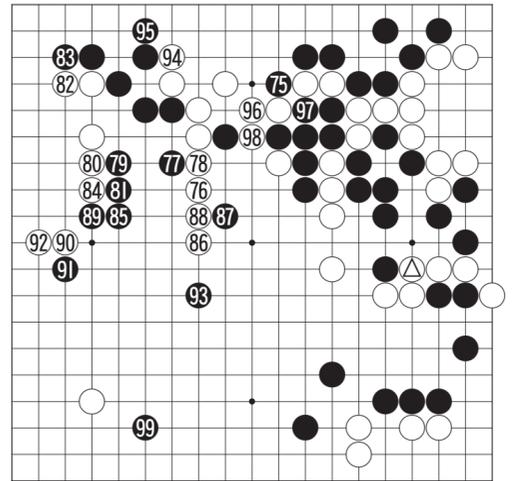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직업대회

실리의 요소 82 3회전 5보(75~99)

白 박영수 5단 (농협)

黑 이민재 5단 (광주시청A)



〈참고도〉

백 ㉔로 잡아 우변 백집이 40 여집이 넘는다. 이쯤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보인 수도 착착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중앙마저 두텁다. 원래 우변은 흑이 주력으로 삼았던 진지였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전이 벽해가 되어서는 절대비세의 국면이 되었다.

흑 75로 잡은 것은 부득이한 수. 바쁘다고 이곳을 이곳을 두지 않으면 중앙 흑이 위태롭다. 정말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위기 속에 둔 흑 79가 또 허망한

수였다. 이판은 이민재 5단이 난조의 연속이다. 계속해서 요체를 놓치고 있다. 반면 박영수 5단은 적시에 상대의 범실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 5단으로서는 평상심을 잃을 만도 하다.

79는 '참고도'의 흑 1이 실리의 요소며 백의 근거를 빼앗는 급수였다. 박 5단이 짝싸게 80으로 한번 밀어넣는 다음 82에 내려서자 '참고도'와는 실리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투는 중반에서 후반으로 치닫는데 이제 흑은 정말 뭇가 한걸음 터뜨려야 한다. 흑 91로 막고 93으로 모자를 씌우는 등이 5단의 결을 바꿀 수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이세돌 승승장구 돌격 앞으로!

물가정보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9단이 GS칼텍스배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리그에서 박영훈 9단을 물리치고 리그 3연승을 거뒀다.

이 대국의 승리로 이세돌 9단은 44승 17패를 기록, 이창호 9단과 허영호 5단을 1승 차로 따돌리고 다승 1위에 올라섰다.

이세돌 9단은 GS칼텍스배 본선리그 박영훈 누르고 3연승호 9단,

조한승 9단, 김승준 9단, 그리고 은소진 3단과의 대국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은소진 3단은 리그 4전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주목해야 할 상대.

이번 대회부터 리그전 방식으로 부활한 GS칼텍스배 프로기전의 제한시간은 각 3시간이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준우승 1천200만원).

리그 1위를 거둔 기사에게 도전권이 부여되며, 도전자는 타이틀 보유자인 최철한 9단과 5번기로 패권을 다툰다. GS칼텍스배 본선리그전의 상위 4명은 차기대회 본선 시드권이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KIXX, 선두 눈 앞

한국바둑리그, 1위 한게임 꺾고 1점차 추격

광주 KIXX가 선두 한게임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광주 KIXX는 최근 열린 한국바둑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선두 한게임을 3-1로 꺾고 승점 3점을 확보, 승점 17점인 한게임을 불과 1점차로 추격하고 있다.

KIXX는 개막 초반 4연승으로 팀을 견인했던 흥민표가 은소진을 꺾고 기선을 제압한 뒤 3번 주자 박정상과 최종 주자 최철한이 각각 이영구와 김성룡을 잡아 귀중한 승점을 챙겼다.

KIXX는 주장 최철한은 물론 후지쓰배 우승컵을 들어올린 박정상, 물가정보배 준우승자 최원웅 등이 견재해 선두 탈환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개인 성적에서는 KIXX의 주장 최철한을 비롯 이영구 원성진 강동운이 나란히 7승2패로 이창호(7승1패)와 함께 다승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강동운은 4라운드 이후 6연승을 올려 다음 라운드에서 또 승리한



광주 출신 오규철 9단이 최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6한국바둑리그 서울투어에서 바둑판이 그려진 부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부산 파크랜드 소속인 오 9단은 이 대회에서 서울 제일화재 김지석 3단에게 흑 불패했다.

〈한국기원제공〉

다만 가장 유력한 연승상 후보로 부상하게 된다. 한국바둑리그는 도요타 덴소배가 열리는 이번 주에 휴식기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경기를 재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안니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for 'Megabox')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for 'Movie listing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for 'Movie listings')

씨너스광주 8개관 (Cinema advertisement for '8 Theaters')

9월15일 개관 예정 (Advertisement for 'Opening on Sept 15')

건물매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uilding Sale')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Agent')

LC타워(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 Tower')

21세기부동산건설(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현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undai Real Estate Agent')